

광주항쟁·방북·망명·투옥...

억압과 싸웠던 황석영의 불꽃같은 삶



수인 1·2

황석영 지음

황석영은 현대사의 슬한 굴곡과 파란을 치열하게 겪어온 작가다. 올해는 그가 5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석방된 지 20년째 되는 해다. 그동안 그는 “시간의 감옥, 언어의 감옥, 냉전의 박물과도 같은 분단된 한반도라는 감옥에서 작가로 살아왔다.”

황석영이 6월항쟁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자전(自傳) ‘수인’을 펴냈다. 자전적 증언이자 문학적 증언인 책은 그의 지나온 파란만장한 삶, 자유를 위해 시대의 억압과 맞서왔던 불꽃같은 여정이 담겨 있다.

당초 2004년부터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분량은 원고지 4000장이었다. 그때 연재는 어린 시절부터 연대순으로 이어지다가 1976년 전라도 해남으로 이주하는 데서 중단됐다. 이밖에 새로 쓴 분량이 2000장이었다. 1980년 광주항쟁과 1989년의 방북과 망명, 투옥 등 격렬한 삶이 담긴 2000장을 쓰며 작가는 자주 아파서 병원을 드나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한 6000장에서 다시 2000장을 덜어내며 총 4000장의 원고가 완성됐다.

‘수인’은 1993년, 작가가 방북과 뒤이은 망명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즉시 안기부에 끌려가 수사관들에게 취조를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후 이야기는 감옥 안에서 보낸 5년의 시간과 유년부터 망명시절까지의 생애라는 두 시간대가 교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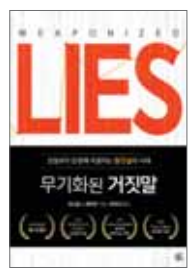
감옥 바깥의 시간은 다시 순서를 달리해, 1985년 광주항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출판한 후 처음 한반도를 벗어나 바깥 세계를 경험한 이후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민주화운동과 방북, 망명,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 시간을 거슬러 가족과 함께 월남한 후 다섯 살 무렵으로 돌아가 한국전쟁과 4·19, 베트남전쟁을 겪고 작가의 길로 들어서서 5·18 광주항쟁을 맞기까지의 기억을 되짚어간다(만주 장춘에서 출생한 그는 평양에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어머니 등에 업혀 월남했다).

감옥 안과 밖의 시간을 나누는 구성은 작가의 현실 시간 가운데서 불꽃같은 감옥의 장면이 끊어지듯 끼어드는 효과를 준다. 이를 통해 작가의 삶은 단순한 시간 순으로 나열되는 대신 방북과 망명, 투옥이라는 결정적 계기들을 중심으로 재배치된다. 그로 인해 그가 온몸으로 싸워 지켜낸 한줄 빛의 자유는 오늘의 우리에게 소중한 씨앗으로 다가온다.

〈문학동네·각 1만6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짜 뉴스’ 시대 거짓속에서 진실 찾기



무기화된 거짓말

대니얼 J. 레비티 지음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뽑은 2016년 올해의 단어가 ‘탈진실(post-truth)’였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진실의 붕괴는 큰 사회적 문제였다. 허위 지식, 반쪽 진실, 음모설과 더불어 최근 대두된 ‘가짜 뉴스(Fake News)’는 탈진실의 시대를 투영하는 세계적 특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신경 과학자이자 인지 심리학자인 대니얼 J. 레비티가 쓴 ‘무기화된 거짓말’은 한마디로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유일한 통찰이다. 저자가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대학에서 ‘비판적 사고’에 대해 강의

를 하는 동안 거짓말의 위험성과 파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져가는 것을 목격하고서였다.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주장을 폄하한다는 뜻이 아니다. 증거가 있는 주장과 증거가 없는 주장을 분간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다.”

저자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내용이라 해서 모두 ‘사실’은 아니라는 관점을 취한다. 심지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이들과도 더러는 연구조차 하지 않은 채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은 특정 사이트 등이 진짜를 말하는지 허위를 전하는지 알아내기 힘들다. 안타깝게도 진실을 말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들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오늘의 현실은 전 세계가 거짓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디셋·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쟁은 무기를 낳고 무기는 전쟁을 부른다

전쟁과 무기의 세계사

이내주 지음



“무엇보다도 남북전쟁은 전쟁 승리를 위해서 국가의 인적 및 물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투입해야만 하는 현대 총력전의 서곡이었다. 이전까지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던 정신력과 군대의 사기는 점차 그 중요도가 낮아졌다. 무기 성능과 화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무조건적인 돌격은 대량살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었다.”(본문 중에서)

최근 북한 무인기(드론)로 추정되는 비행물체에서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 사진이 다수 발견되면서 북한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무인 비행물체가 남한의 먼곳까지 내려온 것은 처음이다. 과연 북한의 무기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흔히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한다. 바퀴 말하면 ‘무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의 여러 종 가운데 같은 종을 죽이는 생명체는 인간이 거의 유일하다. 그것도 무지막지한 전쟁을 통해서 말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인명을 살상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전쟁을 할까?

“전쟁에 이겨서 상대에게 내 의지를 강요하거나 필요시 상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내주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는 ‘전쟁과 무기의 세계사’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무기의 비밀을 파헤친다. 저자는 전쟁사를 군대 및 전쟁에 관한 이야



기로 규정한다. 책은 서양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발달한 전쟁에 대한 일반사와 전쟁사가 접목돼 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4개의 부로 나뉘져 있으며 특히 세계사를 바꾼 중요한 전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해당 전쟁 중 당대 무기발달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전투가 선별돼 있다.

전쟁, 전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기다. 무기가 바로 세계사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매개체다.

1부 ‘고대 전쟁과 무기’에서는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를 다룬다. 그리스 시민 전사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무기체계를 발전시켰다. 그리스에서 군 복무는 무장능력을 갖춘 폴리스 시민이 누리는 특권으로 치부됐다. 공동체 정신, 단결심이 결합된 이들 군대는 보병 중심의 무기체계와 전술을 개발했다.

2부 ‘중세 전쟁과 무기’는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의 유럽의 정세를 다룬다. 서유럽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흩어져 있던 바이킹(노르만족)의 침탈로 혼란을 겪는다. 저자는 “바이킹 후예들이 이룩한 최대 성과는 노르만공 윌리엄의 잉글랜드 정복이었다”고 한다.

‘백년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간에 영국 왕실의 영토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이었다.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 승리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전쟁 초기에는 장공부대를 앞세운 영국군이 기사군 중심의 프랑스군을 연이어 격파했다.

3부 ‘근대 전쟁과 무기’에서는 절대왕정의 시대·산업화 시대 전쟁을 조명한다. 밀집대형의 종말을 불러온 30년 전쟁, “내 사전에 불개는 없다”고 주장했던 나폴레옹 전쟁, 노예제도를 둘러싼 미국의 남북전쟁을 들여다본다.

4부 ‘현대전쟁과 무기’에는 세계1차대전과 2차대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대전 최악의 전투로 꼽히는 파스샬 전투, 2차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원자폭탄 투하와 일본의 항복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저자는 “오늘날 미디어 기술의 발전 덕분에 전쟁은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며 “전쟁의 원인과 본질, 그리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포괄적으로 조망하려고 노력할 때, 세계평화를 위해 진정한 필요 무엇이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채륜사·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폭탄먼지벌레·후투티·물방개... 동식물의 별별 이야기



별별 생물들의 희한한 사생활

권오길 지음

생물 수집가이자 이야기꾼인 권오길 강원대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동식물에 관한 비밀스럽고 놀라운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생물의 사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별별 생물들의 희한한 사생활’은 생물학적 지식과 잘 버무려진 권의 과학작가 이야기책으로 손색이 없다.

책장을 펼치면 몇 생명들로 가득한 우리 세상이 또 다른 별천지로 다가온다. 위협해지면 테러리스트처럼 폭탄을 터트리는 폭탄먼지벌레부터 인디언 추장의 머리 장식과 비슷한 깃털을 달고 있는 후투티, 물속 호랑이라 불리는 물방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또한 얼룩말과 당나귀 사이에 태어난 잡종인 존키처럼 흔히 보기 힘든 생물들도 만날 수 있다. 저자가 전하는 이야기에 갈색겨저리 유종인 밀웬이 스티로폼을 소화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놀라운 내용도 많다. 〈윌문출판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미국과 북유럽 사회 속성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미래에...

아누 파르타넨 지음

북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의 새로운 롤 모델로 급부상한 것은 오래다. 그 가운데 핀란드는 PISA 평가에서 연속해 높은 순위를 기록해 ‘교육 기적’의 나라로 각광받았다. 그뿐 아니다. ‘국가 경쟁력 1위’, ‘국가 투명성 1위’, ‘국가 행복 지수 1위’ 등 다양한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어떤가? ‘자유와 기회의 빛나는 국가’라는 평가가 무색해진 지 오래다. 핀란드의 잘 나가는 언론인이 미국에 정착한 뒤 경험한 실상을 기록한 책이 발간됐다. 아누 파르타넨이 쓴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는 미국과 북유럽 사회의 속성을 생생하게 포착해낸 보고서다.

책은 핀란드와 미국 모두 양쪽에서 살아본 저자가 두 지역의 사회 시스템과 속성이 어떻게 다르고 삶의 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원더박스·1만6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 광역시 북구 증음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음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010-8628-0482